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버력 04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편집위원 발행일: 2019년 04월 30일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2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놀이동산(롯데월드) 체험



▲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놀이동산 단체사진



▲ 즐겁게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3월 29일(금) 잠실 롯데월드에서 2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놀이동산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잠실역 3번 출구에서 10시 30분까지 집결하여 간단한 점식식사 후, 롯데월드로 입장하였고, 롯데월드는 생각보다 한산하고 날씨 또한 선선하여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참여자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지하 3층에 위치한 VR스페이스로 이동하여 VR체험을 하였으며, VR체험을 마친 후 회전목마 앞에 있는 조형물을 배경삼아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였던 데로 놀이기구를 잘 타는 팀과 놀이기구를 못 타는 팀으로 나누어 놀이동산체험을 시작하였고, 놀이기구를 잘 타는 팀은 혜성특급, 회전그네 등의 다양하고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체험하였으며, 못 타는 팀은 회전목마, 퍼레이드와 민속박물관 관람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까지 놀이동산체험을 마친 후, 다 같이 모여 만족도평가 및 프로그램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팀으로 나눠 자신에게 맞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참여자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나 담당자로서 부딪함을 느끼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또한 모든 참가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단체사진



▲ 시민들에게 리플렛과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

3월 28일(목)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1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당일 오후 13시부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선정된 활동가 2명과 강북센터의 전 직원들은 함께 여행연습을 하며 캠페인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첫 캠페인인 만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강북센터 직원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유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센터의 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지하철 입구에서 시민 분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장애인식개선캠페인에 취지를 알리고 부스에서는 수유역을 이용하는 시민 분들에게 리플렛과 전단지,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 분들에게는 증정품으로 마스크를 나눠드렸습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지하철 역사를 오고 가는 많은 시민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꼈던 반면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일부 시민 분들의 눈빛을 통해 캠페인 활동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긍정적인 장애인식개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00씨 1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기'



▲ 요리교실을 위해 장을 보는 모습



▲ 신00씨가 직접 김밥을 써는 모습

4월 3일(수) 신00씨의 1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체험자 신00씨는 요리교실을 희망하여 1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좋아하는 음식인 김밥을 직접 만들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00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료로 장을 보고 강북센터 교육실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고 썰며 매우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체험자 신00씨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생각하며, 직접 요리실습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보며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신00씨의 2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은 파마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꿔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씨 1 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동물원 관람

4월 9일(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임○○씨의 2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동물원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동물원에 가고 싶다는 임○○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물원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날씨가 좋지 않아 프로그램 중간에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동물원까지 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하는 임○○씨에게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못 이긴 척 얼굴을 가리며 포즈를 잡는 임○○씨의 모습에 기분 좋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벚꽃 길을 지나쳐 동물원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코끼리와 호랑이, 사자, 재규어가 우리를 반겨 주었고, 임○○씨는 재규어를 보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다른 동물들을 보고 식물원까지 들린 후 애니스토리라는 동물공연을 보러 공연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공연이 시작하자 무뚝뚝한 표정과 다르게 동물들이 나올 때마다 작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의 짧은 공연이 끝난 후 어떤 동물이 가장 귀여웠냐고 묻자 고양이와 제일 귀여웠다며 수줍게 말한 임○○씨는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으며 그 외 벚꽃 길과 식물원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별자립생활훈련을 통해 체험자가 주도하여 친구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하러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끝 맺었습니다.



▲ 벚꽃 밑에서 수줍게 사진을 찍는 임○○씨 모습



▲ 재규어를 구경중인 임○○씨 모습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3차 사전회의와 영화 '돈' 관람



▲ 3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영화 '돈' 관람 사진



▲ 3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명동대성당 및 단체사진

4월 10일(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3차 사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회의에 따라 4월 17일(수) 명동에서 영화 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0일(수)에 열린 사전회의는 송○○씨 진행 하에 시작되었고, 안건으로는 '3차 자조모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는 안건과 '영화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 라는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명동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과 류준열, 유지태 주연의 '돈'이란 영화를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3차 자조모임은 명동에 위치한 CGV에서 영화 관람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정해진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4월 17일(수)에 진행하였고, 영화관람 후 참여자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라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평소 먹어본 라멘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은 다른 라멘에 대하여 회원들은 신기하다는 듯 서로서로 감정을 나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명동거리를 거닐던 참여자들은 명동대성당을 보며 들어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명동대성당으로 들어가 미사를 참관해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명동거리에 있는 상가들을 구경하며 미리 준비해 온 용돈으로 필요한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간식거리를 사 먹으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을 보였습니다.

이번 3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회원들이 가보고 싶어 하던 명동에 방문과 영화 관람을 진행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회원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더 많은 소통을 하여야겠다는 마음다짐으로 이번 3차 자조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진행



▲ 상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진행 사진



▲ 체험자에게 김치 배포

4월 26일(금)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상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북센터 ‘상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는 김장을 담그는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김치를 담가,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당일 날, 강북센터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집결하여 배추에 물을 빼며 체험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체험 시간이 다가오자 한 두 분씩 참여자들이 오시기 시작하였고, 체험 장소인 강북센터 교육실은 북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에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방문하시어 김장 체험을 함에 따라 오후 시간대에는 약간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험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은 강북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 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례 없는 많은 분들에게 김치 담그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어 준비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강북센터 직원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분들의 즐겁고 부듯한 마음으로 김치 담그기를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며 담당자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치 담그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체험자분들과 진행을 도와주신 강북센터 직원들,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다음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또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 다형 엄○○씨 1차 단기체험



▲ 엄○○씨 자립생활주택 1차 단기체험 볼링체험



▲ 엄○○씨 자립생활주택 1차 단기체험 VR체험

3월 26일(화) ~ 3월 28일(목) 엄○○씨 자립생활주택 1차 단기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은 생활원에서 나와 자립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곳으로써, 예비입주자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단기체험입니다.

예비 입주자 엄○○씨는 1일차에 볼링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볼링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엄○○씨는 볼링을 치러갈 생각에 들며 매우 신나있는 모습을 보이셨으며, 볼링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공을 잡아 스트라이크를 치고, 볼링을 치는 내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2일차에는 VR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경을 쓰니 생생한 가상현실이 눈앞에 보이자 신기하다며 '우와~' 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체험관에는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그 중 엄○○씨가 가장 좋아하셨던 게임은 야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며 엉성한 실력을 보였지만 이후 가상현실에 적응한 엄○○씨는 홈런을 치며 수준급의 실력을 뽐내셨습니다.

예비입주자 엄○○씨가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차 단기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립생활주택 가형 입주자 김○○씨, 신○○씨 생일파티

3월 29일(금)과 4월 3일(수) 자립생활주택 가형 입주자 김○○씨와 신○○씨의 생일 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4월 5일(금) 여가문화체험 ‘잠실 석촌 호수 벚꽃축제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3월 29일 생일선물로 여름 이불세트를 구입하신 김○○씨 모습

3월 29일(금)에 진행한 생일파티 프로그램 점심외식 메뉴로 김○○씨가 좋아하시는 한식으로 메뉴를 정하였고, 그의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한식을 드실 수 있는 미야사거리 자연별곡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생일파티의 주인공이신 김○○씨는 다양한 한식을 놓고도 입이 짧아 많이 못 드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의 생일선물로 원하시는 여름이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하신 이불이 마음에 드신 김○○씨는 한껏 들뜬 모습을 보이셨고, 새로 산 이불의 산뜻함처럼 봄을 맞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3일(수)에 진행한 입주자 신○○씨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은 신○○씨가 원하시는 생일선물로 옷을 고르셨고 ‘난 이거, 이게 좋아’ 라며 말씀하시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생일파티 겸 점심식사는 가형 주택 식구들과 진행 할 계획이었으므로 신○○씨에게 큰 케이크 보다 작은 케이크가 나올 것 같다고 권해드렸더니 신○○씨는 권해드린 대로 소박하고 자그마한 초코케이크를 선택하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함에 따라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고, ‘나 많이 행복해’ 라는 신○○씨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과 행복한 웃음을 짓는 신○○씨의 모습을 보며, 담당자인 저에게도 행복이 전달해 오는 것 같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 4월 3일 생일을 맞은 입주자 신○○씨가 해맑게 웃는 모습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발전하는 입주자 김○○씨와 신○○씨를 보며, 좀 저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지원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는 시간이었고, 두 차례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가형 입주자 나들이 프로그램



▲ 잠실 석촌호수 나들이 진행모습



▲잠실 석촌호수 벚꽃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입주자들

4월 5일(금) 가형주택 여가문화체험 ‘잠실 석촌 호수 벚꽃축제 나들이’ 프로그램은 당일 아침 입주자 분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약속하였던 시간 보다 1~2시간 정도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다른 입주자분들이 배려 깊은 마음으로 ‘괜찮아요,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라며 이해해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오전 시간을 보낸 탓인지 입주자 분들은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보고도 큰 감흥이 없어 보였고, 벚꽃나무아래서 웃는 얼굴로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분들은 오전에 돌발 상황으로 인해 심적으로 놀란 탓인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계획하였던 프로그램 진행 시간보다 일찍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나들이를 맘 편히 즐길 수 없었던 입주자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나들이를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돌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날 나들이 프로그램을 끝마쳤습니다.

이달의 정보

‘장애인학대’ 지금 1644-8295 신고하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를 제작,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등)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5000여 기관에 배포되며, 국민들에게 장애인학대를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소소한 소통’에서 디자인한 포스터에는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소개 및 신고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절차 등이 담겨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균 관장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홍보 포스터 제작을 시작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터를 받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기사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90411085500876517>



▲ 장애인 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달의 정보

서울시, 느린학습자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조성

서울시가 발달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이른바 ‘느린학습자’ 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을 마포·은평·송파구 등의 구립도서관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다고 5일 밝혔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특수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도서관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은 2019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제안됐으며, 시민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이 직접 서비스개발 ‘과정’ 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도서관 공간 구성과 세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당사자와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4월)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반적인 정보자료나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느린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사업에는 마포구(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송파구(송파글마루도서관), 은평구(은평구립도서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이 참여하며,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은 은평구립도서관에 조성된다.

느린학습자 당사자, 가족, 전문가, 지원기관이 서비스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시끄러운 도서관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의 공론장 또한 열 예정이다.

기사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405111852969242>

2019년 04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지연
박동열 박지훈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너의 보석들이 되어줄께’ 참여자 모집	
일 시	2019년 5월 16일(목) ~ 18일 (토)
장 소	대방동 여성플라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모집대상	서울지역 거주 장애인
모집인원	총 10명 (장애인 5명, 보조인 5명)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 뒷면)
신청기간	5월 02일 ~ 5월 13일 오후 5시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모집	
일 시	2019년 5월 28일(화) ~ 7월 2일 (화) 매주 화요일
장 소	이룸센터 소교육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모집대상	장애인권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집인원	15명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 뒷면 필수)
신청기간	2019년 5월 07일 ~ 5월 24일

프로그램 신청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및 사무실
(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타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